

죽음의 E조 16강 '안갯속'

‘무적함대’ 스페인·‘전차 군단’ 독일 조별리그 ‘빅 매치’ 1-1 무승부 스페인-일본, 독일-코스타리카 최종전에서 2라운드 진출팀 결정

‘무적함대’ 스페인과 ‘전차 군단’ 독일이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최대 ‘빅 매치’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E조 16강 경쟁을 안갯속에 빠뜨렸다.

스페인과 독일은 28일(한국시간) 카타르 알코르의 알바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월드컵 조별리그 E조 2차전에서 후반 한 골씩을 주고받으며 1-1로 비겼다.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 우승팀인 스페인은 1차전에서 코스타리카를 7-0 완파한 데 이어 2경기 무패(1승 1무)로 E조 선두(승점 4)를 지켰다.

E조에선 일본(골 득실 0)과 코스타리카(골 득실 -6)가 나란히 승점 3으로 스페인의 뒤를 잇고 있다.

2014 브라질 월드컵을 포함해 통산 4회 우승 트로피를 보유했으나 2018 러시아 대회에서 조별리그 최하위로 탈락하고 이번 대회 1차전에서 일본에 1-2로 밀리며 잡혀 자존심을 구겼던 독일은 첫 승점을 어렵게 따냈다. 그렇지만 여전히 최하위(승점 1)에 머물렀다.

E조의 16강 경쟁은 스페인-일본, 독일-코스타리카의 최종전까지 이어지게 됐다.

스페인이 후반전 시작 9분 만에 토레스를 알바로 모라타로 넣는 첫 교체 카드로 공격진에 변화를 줬는데, 모라타가 선제골의 주인공이 되며 완전히 적중했다. 후반 17분 올모가 밀어준 공을 조르디 알바가 낮은 크로스로 이어갔고, 모라타가 오른쪽으로 밀어 넣었다.

독일은 후반 24분 일본과의 1차전에 결장했던 레로이 자네를 비롯해 3장의 교체 카드를 한꺼번에 사용하며 반격을 준비했다.

후반 28분 자네 무시알라가 골키퍼와의 일대일 기회에서 골키퍼 쪽으로 공을 차버리며 독일은 땅을 쳤으나 자네와 함께 교체로 그라운드를 밟은 공격수 니콜라스 펠크루크의 한 방으로 마침내 균형을 맞췄다.

후반 38분 자네의 절묘한 침투 패스를 무시알라가 페널티 지역 안 좁은 공간에서 연결했고, 펠크루크가 오른쪽으로 골문을 열었다. 일본과의 1차전 때 일카이 칸도안의 페널티킥으로만 득점했던 독일의 대회 첫 필드골이 승점 1로 이어졌다.

일본은 27일 카타르 알라이안의 아흐마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코스타리카와 2022 카타르



스페인 축구대표팀 알바로 모라타가 27일(현지시간) 카타르 알코르 알바이트 스타디움에서 독일을 상대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E조 2차전에서 골을 터뜨린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월드컵 조별리그 E조 2차전에서 0-1로 패했다.

조별리그 1차전에서 ‘전차 군단’ 독일이 2-1 역전승을 거두며 패자를 부른 일본은 코스타리카를 열심히 몰아붙이고도 고개를 숙였다.

슈팅 개수에서 14(유효 슈트 3개)-4(유효 슈트 1)로 앞섰지만, 역습을 노려 단 하나의 유효 슈트를 연결한 코스타리카의 일격에 당하고 말았다.

모리야스 하지메 일본 축구 대표팀 감독은 이날 독일전 라인업에서 대폭 변화를 줬 유에다 아야세(세르클러 브뤼허), 소마 유키(나고야 그램퍼스), 도안 리스(프라이부르크) 등 5명을 새롭게 선발로 내세웠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이날 승리했다면 16강 진출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었던 일본은 스페인과 3차전에 사활을 걸어야 16강을 바라보게 됐다. /연합뉴스

‘슈퍼 서브’ 모라타, 2경기 연속 교체 출전 득점

월드컵 역대 6번째 기록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 선정

알바로 모라타(30·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월드컵 무대에서 두 경기 연속 교체 출전해 골망을 흔들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스페인 대표팀 최종 명단에 제외되는 아픔을 겪은 모라타는 2022년 카타르에서 ‘슈퍼 서브’로 전가를 발휘하고 있다.

모라타는 28일(한국시간) 카타르 알코르의 알바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국제축구연맹

(FIFA) 월드컵 조별리그 E조 2차전 독일과의 경기에서 후반 9분 페란 토레스를 대신해 그라운드를 밟았다. 8분 뒤인 후반 17분, 모라타는 조르디 알바의 낮은 크로스를 오른쪽 아웃프런트로 밀어 넣어 골문을 열었다.

스페인에 후반 38분 독일의 니콜라스 펠크루크에게 동점골을 내주면서 모라타가 만든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1-1로 비겼다.

스페인은 16강 진출확정을 최종전으로 미뤘지만 1승 1무(승점 4)로 G조 1위를 지켰다.

모라타는 경기 최우수선수 격인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에 뽑혔다.

이번 대회에서 모라타는 진기록도 남겼다.

모라타는 24일 코스타리카와의 1차전에서도 후반 12분 토레스와 교체돼 월드컵 데뷔전을 치렀고, 후반 추가 시간 때 골을 넣었다. 1차전에서 스페인은 7-0 완승을 거뒀다.

그는 2차전에서도 ‘교체 출전해’ 득점했다. 스포츠 통계 업체 옵타는 “모라타는 월드컵에서 교체 출전해 두 경기 연속 골을 넣은 역대 6번째 선수가 됐다”고 밝혔다.

조반니 리베라(이탈리아), 루디 펠러(독일), 올렉산드르 자바로프(우크라이나), 리카르도 펠라레스(멕시코), 뎀피스 데파이(네덜란드)가 모라타에 앞서서 이 기록을 달성했다.

월드컵 개인 1, 2호 골을 모두 교체 출전해 넣은 선수는 모라타와 펠라레스, 데파이 등 3명뿐이다. /연합뉴스

‘앙숙’ 이란 vs 미국, 30일 16강 티켓 놓고 마지막 승부

이란 1승1패 승점 3 조 2위

미국 2무승부 승점 2로 3위

이란과 미국이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16강 진출 티켓을 놓고 피할 수 없는 맞대결을 벌인다.

이란과 미국은 한국시간 30일 오전 4시 카타르 도하의 알수마마 스타디움에서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B조 3차전을 치른다.

이란이 1승 1패(승점 3)로 조 2위, 미국은 2무(승점 2)로 3위를 달리는 가운데 같은 시간 열리는 잉글랜드(1승 1무)와 웨일스(1무 1패) 결과에 따라 16강 진출 팀이 정해진다.

두 나라 모두 이 경기에서 이기면 자력으로 16강에 오를 수 있고, 반대로 패하면 탈락이 때문에 말 그대로 양보할 수 없는 한판 대결이다.

특히 두 나라는 축구 이외에 정치적으로 ‘앙숙’ 관계를 이어온 사이라는 점에서 팬들의 관심이 더욱 각별하다.

가뜩이나 이란은 이번 대회를 전후해 정치적인 영향을 크게 받은 나라다.

대회 개막에 앞서 이란 내 여성 인권이나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지원 등의 이유로 ‘이란을 이번 월드컵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국제 여론이 일었다.

또 올해 9월 마흐사 아미니라는 여대생이 히잡 미착용을 이유로 체포됐다가 사망한 사건 때문에 이란 내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는 중이다.

이란 선수들은 잉글랜드와 1차전 경기 시작 전에 국가를 따라부르지 않으며 반정부 시위대에 연대 의사를 나타냈고, 웨일스와 2차전 때는 경기장 밖에서 이란 반정부 시위대와 친정부 시위대 사이에 충돌이 빚어지는 등 연일 경기장 밖이 소란스러



미국 티머시 웨어



이란 메흐디 타레미

웠다.

여기에 미국 대표팀 공식 소셜 미디어 계정에서 이란과 3차전을 앞두고 이란 국기 가운데 위치한 이슬람 공화국 엠블럼을 삭제하는 사건이 더해지며 이번 조별리그 3차전을 앞둔 긴장 관계가 더욱 팽팽해졌다.

미국 대표팀 미디어 오피서인 마이클 캐머먼은 “이란 여성 인권을 위한 지지 의사”라고 설명했다.

지금은 미국 대표팀 소셜 미디어 계정에서 이란 국기가 다시 원래 국기 모양으로 돌아왔고, 미국 국가대표 선수들도 “이란 사실을 몰랐다”고 밝히기는 했다.

미국 수비수 워커 지머먼은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여성 인권에 대해서는 항상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란 축구협회 역시 FIFA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가뜩이나 ‘앙숙’인 두 나라 사이가 더욱 불편해지는 분위기다.

이란과 미국은 지금까지 두 차례 만나 이란이 1승 1무로 우위를 보인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이란이 2-1로 이겼고, 2000년 천천 경기기는 1-1로 비겼다.

같은 연령층 소속인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맞대결도 두 나라 모두 16강 진출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팬들의 관심을 끈다.

30일 0시에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르는 A조에서는 네덜란드, 에콰도르(이상 1승 1무), 세네갈(1승 1패)이 2장의 16강 티켓을 놓고 경쟁한다.

이미 탈락이 확정된 개최국 카타르를 상대하는 네덜란드가 다소 유리하고, 에콰도르와 세네갈 경기 승자도 16강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월드컵 경기장 옥일기 등장

FIFA, 곧바로 제지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에 옥일기가 등장했다.

27일 일본과 코스타리카의 월드컵 조별리그 E조 2차전 경기가 열리는 카타르 알라이안의 아흐마드 빈 알리 스타디움 관중석에선 옥일기가 펼쳐졌다.

경기장에 옥일기를 걸어 두려다 제지를 당하는 일본 팬도 있었다.

일본 축구 팬이 옥일기를 흔들고 응원을 펼치자 국제축구연맹(FIFA)이 곧바로 제지한 것과 관련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너무나적절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28일 소셜미디어(SNS)에서 “지난밤 코스타리카와 일본과의 E조 2차 경기가 열리는 알라이안의 아흐마드 빈 알리 스타디움 관중석에 일본 축구 팬들이 또 옥일기 응원을 펼쳤다”며 “하지만 경기장 안전요원들이 곧바로 출동해 이를 제지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내일의 월드컵

30일(수)		※한국시간 기준	
	네덜란드 vs 카타르		00:00
	에콰도르 vs 세네갈		00:00
	웨일스 vs 잉글랜드		04:00
	이란 vs 미국		04:00

자료 : FIFA